

39장. 예루살렘의 함락과 예레미야의 석방

1.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고난 (39:1-10)

39장은 예루살렘 함락의 일을 기록한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 9년 10월이고 함락된 것은 11년 4월이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다가 함락된 것이다. 시드기야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성이 함락되자 도망하였다. 그러나 잡혀서 아들이 죽는 것을 목도한 뒤에 자기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이 헐릴 것이라고 38장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2. 풀려난 예레미야 (39:11-14)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원의 소식도 전파된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석방되었다. 그가 포로로 잡혀 가는 중에 해방된 것은 다음 장에 다시 나온다.

3. 에벳멜렉에 대한 구원 약속 (39:15-18)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벳멜렉이다. 그는 왕궁의 내시였지만 바벨론 사람의 손에 죽거나 끌려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은 경고를 받고 이방인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에벳멜렉의 구원에 대한 기록 방식은 특이하다. 기록의 순서로 보자면 이루어진 사실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시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내용을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은 독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만, 구원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더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39장 익힘 문제

1. 예루살렘 성은 언제 함락되었습니까? (2절)
2.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시드기야는 도망하다 잡혀 아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3.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
4.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어떤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10절)
5.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하게 하였습니까? (12절)
6.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 특히 지목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11-14절; 16절)
7.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